

『世宗實錄』 「地理志」에 등재된 경기도 磁器所의 입지 특징과 등재 기준

박 정 민*

목 차

- I. 머리말
- II. 경기도 자기소 분포와 입지 상황
- III. 조선 왕실의 講武와 경기도 내 자기소 등재 군현
의 상관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이 논문은 『世宗實錄』 「地理志」를 기준으로 磁器所가 등재된 경기도 郡縣의 입지 특징을 파악하여 경기도 자기소의 등재 기준을 추론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전국에 걸쳐 139곳의 자기소를 마련했으나, 전국 모든 군현에 자기소가 등재되지는 않았다. 어떤 목적과 기준에 의해 자기소를 등재한 것이다. 당시 조선 정부의 전국 자기소 등재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道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정 등재 기준은 전국에 걸쳐 적용했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등재 기준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廣州牧 등 10개 군현에 총 14개의 자기소가 등재되었다. 경기도 자기소는 대부분 경기도의 동쪽 절반에 해당하는 山地 군현에 자리한다. 이 지역은 대부분 숲이 많아 자기 제작이 용이하고, 조선 왕실이 講武場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朴正敏,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

투고일: 2020. 4. 29. 심사완료일: 2020. 6. 13. 게재확정일: 2020. 6. 14.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8..75>

조선 정부는 강무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강무 때 필요한 물자를 해당 지방에 미리 준비했다. 다수의 강무 인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할 다량의 그릇 역시 반드시 사전에 갖추어야 할 물품이었을 것이다. 조선 정부는 강무장으로 사용한 군현에 자기소를 등재해서 필요한 그릇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와 왕실간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자 경기도 자기소 등재 기준에 풍부한 빨감과 왕실의 중요행사 준비라는 요소가 반영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핵심어 | 자기소, 경기도, 등재 기준, 講武場, 공납

I. 머리말

15세기 전반 조선의 도자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전국에 걸쳐 비슷한 모양과 문양을 갖춘 분청자를 만든 것이다.¹⁾ 특히 일정한 문양을 도장으로 찍어 그릇을 장식한 印花象嵌 분청자는 생산지별 그릇 걸모양의 격차를 줄였다.²⁾ 또한 國初 조선 정부는 각지에 마련한 磁器所를 통해 전국에 걸쳐 그릇

1) 이 글은 조선 15세기에 제작된 상감청자를 현재 학계에 통용되는 ‘분청사기’ 대신 ‘분청자’로 지칭한다. 분청사기는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선생님이 제시한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이다. 사기의 사전적 정의는 고령토, 장석, 석영 따위의 가루를 빚어서 구워 만든 매끄러운 그릇이나 물건으로 자기와 같은 의미이다. 조선시대 일부 문헌자료를 통해 자기와 사기가 차별적으로 사용된 상황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자기와 사기의 과거 개념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백자나 청자 유물을 백사기, 청사기로 지칭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분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분청자에 대한 개념 제시는 윤용이,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6쪽.

2) 조선 초기 인화상감기법 분청자의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는 김영원, 「朝鮮朝 印花文粉靑沙器의 樣式分類」, 『考古美術』 148, 1980, 1~24쪽; 姜敬淑,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 문제」, 『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下)』, 일조각, 1994, 1472~1497쪽; 박경자,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 27, 2013, 73~98쪽; 구유리, 「조선전기 인화상감자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을 제작했다.³⁾ 고려시대 所는 수공업 혹은 광업으로 필요한 물품을 생산했으며,⁴⁾ 별도의 衙前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이러한 소는 고려후기에 해체되었고 조선 정부는 전국 군현에 속한 磁器匠에게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 공납할 그릇을 생산하도록 했다.⁵⁾

조선 정부는 전국에 걸쳐 자기를 생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 그릇을 쓸 수 있는 사용자가 고려시대에 비해 점차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소를 나라에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자기를 왕실과 중앙 및 지방의 관청에서 두루 쓰는 그릇으로 삼은 것은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였다.

조선 정부가 전국의 여러 군현에 자기소를 등재한 원인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자기소는 자기 그릇의 전국적인 사용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확고히 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신왕조 조선이 당면한 국내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다. 자기 그릇의 보급률을 높여 銅, 銀 같은 금속재료의 消盡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대명외교에 필요한 은 보유량도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자기소의 品等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2, 6~26쪽.

3) 자기소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5, 53~69쪽.

4)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京畿 驪州牧 古迹.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紬所·紙所·瓦所·炭所·塩所·墨所·藿所·磁器所·魚梁所·薑所之別 而各供其物.”

5) 박경자, 앞의 논문, 2009, 21~25쪽.

6) 자기소의 품등은 장인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연구를 시작으로 자기소 품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자는 최근 자기소 품등 중 上品의 의미를 불시의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공납 운송방식과 입지조건을 갖춘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박경자, 위의 논문, 53~69쪽; 박경자, 「상주 상관리 자기 가마와 『世宗實錄』 『地理志』 上品 磁器所」, 『상주 상관리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2017, 78~79쪽. 자기소 품등은 각 자기소에 부여된 공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것이라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안세진,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磁器所 品等の 의미와 品定の

그 가마가 자기소로 등재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조선 정부가 자기소 등재 당시 전국의 모든 자기 가마를 자기소로 등재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⁷⁾ 자기소는 자기를 만드는 곳이므로 은, 철 등 지역에 따라 賦存하는 광물자원을 채취, 제련하는 소와 등재 기준이 달랐을 것이다.

이 논문은 『世宗實錄』 「地理志」(이하 「地理志」)를 기준으로 자기소가 등재된 경기도 군현의 입지 특징을 파악하여 경기도 자기소의 등재 기준을 추론한다. 전국 자기소의 등재기준을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한꺼번에 파악한다면 각 지역별 특징이나 지역 간의 차이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道 단위의 자기소 등재 상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 지방정책의 가장 큰 행정단위이며, 한반도의 지형지세를 반영한 인문지리와 문화의 구분이기도 하다. 각 도의 자기소 등재 상황을 우선 나누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여러 등재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한 연구 방법일 것이다. 동시에 특정 등재 기준은 전국에 걸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등재 기준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므로 경기도만 따로 떼어내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밀접한 땅이라는 경기의 특징이 자기소 등재 기준에 반영되었는지도 파악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자기소 등재 기준을 파악한다면 다른 도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등재 기준을 단계적으로 고찰한다면 조선 전기 전국에 걸친 자기소 등재기준과 지역별 예외 사례 등도 점차 선명해

목적, 『도예연구』 27, 2018, 274~275쪽.

7) 현재까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파악한 경기도 분청자 가마터의 숫자는 총 82개이며, 그 중에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사이에 운영되었을 유적은 71개 정도이다. 이 가마터들은 대부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地理志」의 내용이 조사된 1423년에서 1432년 무렵에 정확하게 몇 기의 가마터가 운영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심지연,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창간호, 2018, 26~62쪽.

질 것으로 기대한다.

Ⅱ. 경기도 자기소 분포와 입지 상황

경기도에는 廣州牧 등 10개 군현에 총 14개의 자기소가 등재되었다(표 1). 조선 정부는 지방에서 공납하는 자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릇에 官司名을 새기도록 했다.⁸⁾ 그러나 조선 전기 경기도 자기 가마터에서는 아직 관사명의 보고 사례가 없어 수습 유물만 가지고 자기를 공납했던 가마터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다.

현재 15세기 전반 자기소의 등재 기준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地理志』의 자기소 관련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地理志』를 중심으로 자기소가 등재된 경기도 군현의 입지 특징을 살펴보고 고고학적 방법으로 존재를 확인한 실제 가마터들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자기소의 등재 기준을 추론하겠다.

조선 전기 대부분 관영수공업은 都城에 편재되었다.⁹⁾ 도자기 제작은 전국에 자기소·도기소를 마련해 관리했으며, 京工匠에 속한 沙器匠¹⁰⁾도 그릇은 경기도 廣州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땀감은 물론 가마와 작업장 등이 들어설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성 안에서 자기를 제작할 수 없었다. 경기도 광주는 관요 성립이전부터 자기소를 마련해 왕실과 중앙

8) 『太宗實錄』 33卷, 17年(1417) 4月 20日 丙子.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露者以盜官物坐罪 以絕巨弊 皆從之.”

9) 『經國大典』 卷6 公典 京工匠. 기록에는 129종, 2,795명의 경공장이 등록되었다. 그 중 사기장은 386명이다.

10) 본문의 沙器匠은 『經國大典』에 기록된 명칭이므로 그대로 사용하고, 이외에 자기를 제작하는 장인은 磁器匠으로 명기했다.

관청이 사용하는 그릇을 제작했다.¹¹⁾

번호	군현	자기소 數	品	위치 ¹²⁾
1	廣州牧	4	上	州 동쪽 伐乙川
			下	州 동쪽 所山
			下	州 남쪽 石掘里
			언급 없음	州 동쪽 羔峴
2	楊根郡	1	下	郡의 서쪽 豆乙萬里
3	砥平縣	1	下	縣의 동쪽 大洞
4	楊州都護府	1	下	府 북쪽 沙川縣 大灘里
5	抱川縣	1	下	縣 동쪽 蜂巢里
6	加平縣	1	下	縣 서쪽 峯在里
7	龍仁縣	1	下	옛 處仁 窯山洞里
8	陽智縣	1	下	縣 남쪽 檻項
9	鐵原都護府	1	下	府 서쪽 高乙波里
10	永平縣	2	下	縣 동쪽 東良伊里
			下	縣 남쪽 馬乙加伊里

<표 1> 『世宗實錄』 「地理志」의 경기도 자기소 목록

「地理志」에 언급된 경기도의 관할은 廣州牧, 楊州都護府, 水原都護府, 鐵原都護府, 富平都護府 등 5개로 크게 나뉜다. 경기도의 자기소는 총 41개 경기도 군현 중에 부평도호부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의 목과 도호부 소속 10개 군현에 등재되었다.

광주목의 관할은 광주목 자체와 驪興都護府, 楊根郡, 陰竹縣, 利川縣, 果川縣, 川寧縣, 砥平縣, 衿川縣 등 9개 군현이다. 그 중 양근군과 지평현 등 2곳에만 자기소가 등재되었으므로, 광주목 전체 군현 중에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의 비율은 약 22%에 해당한다.

11) 조선시대 관요 성립이전 경기도 광주의 자기 그릇 제작에 대한 정리는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4-43쪽.
 12) 자기소 위치는 「地理志」의 각 군현 내용 중에서 발췌했으며, 지면의 한계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개별 각주는 생략했다.

광주목의 북쪽에 자리한 양주도호부에 속한 군현은 原平都護府, 高陽縣, 交河郡, 臨津縣, 赤城縣, 抱川縣, 加平縣으로 양주도호부를 포함하여 총 8개이다. 그 중 포천현과 가평현 2곳에 자기소가 등재되어 관내 약 25%의 군현이 그릇 공납의 의무를 지냈다.

수원도호부 또한 소속 군현 중 25%인 용인현, 양지현 두 곳에만 자기소가 있었다. 수원도호부는 수원도호부 자체와 南陽都護府, 安山郡, 安城郡, 振威縣, 龍仁縣, 陽城縣, 陽智縣 등 8개 군현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 북부의 철원도호부는 朔寧郡, 永平縣, 長湍縣, 安峽縣, 臨江縣, 麻田縣, 漣川縣 등 7개 지역을 관할했고 철원도호부를 포함하여 총 8개 군현으로 구성되었다. 철원도호부의 관할지역에는 오직 영평현만 자기소가 등재되어 전체의 약 12.5%에 해당하는 군현이 그릇 공납을 감당했다.

반면 경기도의 서편 해안가에 자리한 부평도호부에는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이 없다. 부평도호부는 江華都護府, 仁川郡, 海豐郡, 金浦縣, 陽川縣, 喬桐縣, 通津縣 등 7개로 관할 군현과 부평도호부 자체로 이루어졌다. 군현의 숫자는 경기도의 다른 도호부와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전체 군현 중에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의 비율이 24% 정도이므로, 전체의 약 1/4 정도 군현에 자기소가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 위	道	道 전체 군현 數	道별 자기소 數	道별 자기소 등재 군현 數	道별 전체 군현 중 자기소 등재 군현의 비율(%)
1	전라도	56	31	30	53.5
2	경상도	66	37	29	44
3	황해도	24	12	10	41.6
4	충청도	55	23	21	38
5	평안도	47	13	13	27.6
6	경기도	41	14	10	24
7	함길도	22	5	4	18
8	강원도	24	4	3	12.5
-	합 계	335	139	120	전국 평균: 32.4

<표 2> 道별 자기소 등재 군현의 비율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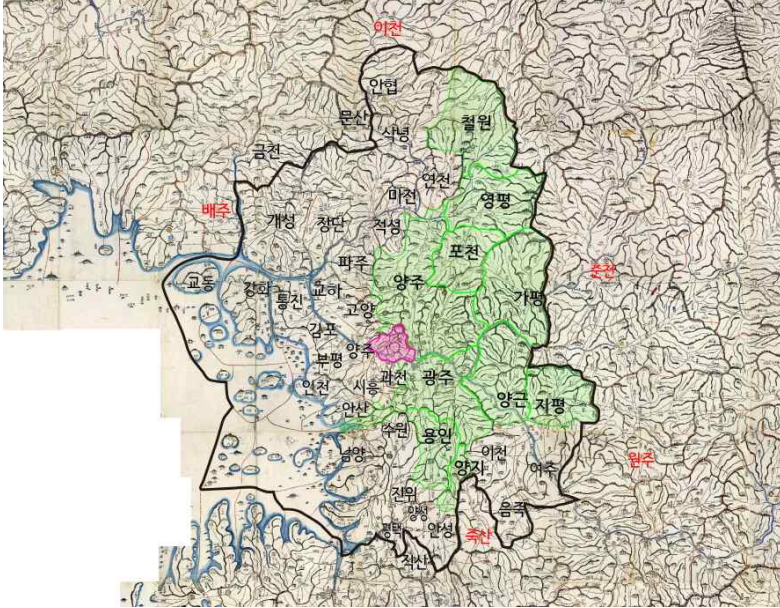
경기도는 전체 군현 중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의 비율이 八道에서 3번째로 낮으며 전국 평균인 32.4%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는 관내 전체 군현 대비 자기소 등재 군현의 비율이 강원도와 함길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표 2).

충청·전라·경상 등 三南지방은 道별 전체 군현 중에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의 비율이 평균 약 45%로 경기도의 두 배에 가깝다. 경기도의 자기소 등재 군현의 비율이 낮은 것은 경기도가 삼남지방과는 다른 자기소 등재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다른 등재 기준은 경기도만의 특징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경기도가 도성인 漢城府를 포함하여 궁궐과 서울의 각종 관청에 馬草나 柴炭을 수시로 납입하는 등 여러 雜貢의 부담이 큰 지역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고 정해진 횟수만을 기한 내에 공납하는 자기 같은 공물을 도성에서 먼 지역에 分定한 것으로 파악했다.¹³⁾ 또한 충청도와 전라도는 漕運을 이용해서 자기를 도성에 보낼 수 있었고,

13) 박경자, 앞의 논문, 2009, 83쪽.

경상도는 지역의 특성상 세곡 조운이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자기 그릇을 공납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표 2>와 같은 비율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일 것이다.¹⁴⁾



<그림 1> 경기도 자기소 등제 군현 위치(陰影部: 자기소 등제 군현)

경기도의 자기소는 전체 약 1/4의 군현에 등재되었으나 실제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 이상이다.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은 도성 주변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 자기소는 주로 도성의 동쪽 절반에 해당하는 山地 군현에 등재되었다(그림 1).¹⁵⁾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경기도

14) 박경자, 앞의 논문, 2009, 133~136쪽.

15) <대동여지도>는 19세기에 제작되었으나 대체로 조선 전기의 군현 위치를 반영하므로, 해당 지도에 표시된 권역을 활용하여 「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 등제 군현의

자기소만의 등재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도성을 기준으로 동쪽 절반에 해당하는 경기도 자기소 등재 군현의 입지 특징 중에서 공통점을 뽑아내면 경기도 자기소 등재 기준은 보다 선명해 질 것이다.

15세기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자기를 생산했던 가마의 숫자는 경기도 자기소 14곳보다 많았을 것이지만, 경기도 자기소는 주로 동쪽에 자리하는 군현에 등재되었다.¹⁶⁾ 자기소가 등재된 경기도 군현의 입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당시 조선 정부가 마련한 경기도의 자기소 등재 기준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조선 왕실의 講武와 경기도 내 자기소 등재 군현의 상관성

특정 군현에 자기소를 마련했다는 것은 군현에 속한 磁器匠에게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 공납할 그릇의 생산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이다.¹⁷⁾ 자기소 등재 기준은 자기소의 개별 특징이 아닌 자기소가 속한 군현의 성격이나 중앙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경기도의 자기소 등재 군현 10곳 중에 광주목, 용인현, 양지현 등은 嶺南路가 지나는 길목에 자리한다. 영남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母體이다. 영남로는 공납품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운송했다. 실제 광주목의 자기소로 추정하는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와 우산리 그리고 남한산성면 번천리 등지의 가마터는 영남로와 직접 연결되는 小路

위치를 표시했다.

16) 현재 15세기 전반에 분청자를 만든 가마터들은 경기도 32개 리에 걸쳐 보고되었으며, 일부 가마터는 「地理志」에 자기소 등재 군현으로 언급되지 않은 곳에도 자리한다.

심지연, 앞의 논문, 2018, 42~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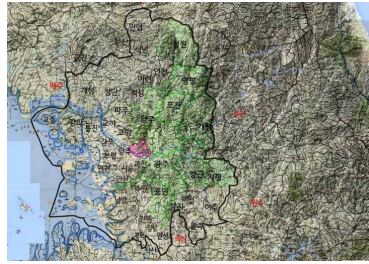
17) 박경자, 앞의 논문, 2009, 10~22쪽.

주변이나 계곡 상부에서 구릉 하단부의 평지 마을로 이어지는 길가에 입지한다.18)

용인현의 자기소로 파악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화산리 분청자 가마터 역시 서남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조선시대 영남로가 지났던 경부고속도로와 만난다. 양지현의 자기소로 추정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 또한 동쪽으로 터진 개활지를 따라 이천과 남쪽의 안성으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한다(그림 2).



<그림 2> 용인현과 양지현 자기소 추정 위치



<그림 3> 자기소 등재 경기도 군현 위치와 지형도 중첩 (陰影部: 자기소 등재 군현)

이렇게만 보면 조선 정부는 주변으로 이동이 편리한 군현에 자기소를 등재한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 조운로가 지나는 서해안 군현에는 자기소가 없다. 부평도호부는 서해와 한강을 통해 도성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 곳은 강변과 해안가라는 입지 특징을 통해 자기를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은 없다.19)

18) 이들 가마터의 입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자박물관, 『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10~14, 56~57, 144~145, 234~235쪽.

19) 최근 강화군 사기리 가마터와 관련한 가마폐기물 퇴적을 발굴하여 인화상감기법으로 화문, 연주문 등을 시문한 분청자와 ‘丙子’명이 표시된 굽통을 확인했다. 유적에서

도성으로 연결되는 경기 북부의 중요한 수계인 臨津江변의 군현들 역시 자기소가 등재된 곳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경기도 자기소 등재 기준에 도로 말고도 중요한 요건이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자기소가 등재된 경기도 군현의 위치와 지형도를 중첩한 것이다.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기소는 경기도 동쪽의 산악지역 군현에 등재되었다. 땀감의 확보를 중요한 자기소 등재 기준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기도 서남부는 주로 평탄지로 중간의 낮은 구릉들을 제외하면 숲이 우거진 지역이 동북부에 비해 적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자기소가 등재된 군현이 없었던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경기도 남부에서는 용인현과 양지현까지가 경기도 북동부에서 이어져오는 산줄기가 연결되는 곳으로 자기소가 등재되었다. 경기도 남부에서는 이 지역까지가 자기소 입지가 용이한 산지 위주의 고을이다. 용인과 양지의 남쪽은 안성이며 동쪽은 여주로 두 군현 모두 주로 평탄지로 이루어져있고 자기소는 등재되지 않았다.

용인현의 자기소로 간주하는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窯山洞 분청자 가마터와 양지현의 자기소로 추정하는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는 모두 현재 용인시 처인구에 속해 있다. 두 곳의 가마터는 이동면 남단의 시궁산(時宮山, 514.9m)과 쌍령산(雙嶺山, 502m)으로 이루어진 능선의 들레에 자리한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용인현과 양지현의 경계부이며, 조선 전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여러 기의 가마터들이 위치한다.²⁰⁾

함께 출토한 분청자들의 조형 특징 등을 감안 할 때, 병자년은 1456년(世祖 2)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화군 사기리 가마터는 「地理志」에 등재된 자기소의 조사 하한인 1432년 이후에 요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화서문화재단연구원, 「인천 강화 사기리(산 5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9, 22쪽.

20) 해당 지역에서는 대략 10곳의 조선시대 자기 가마터가 보고된 바 있다. 용인시 외, 『용인의 도요지』, 1999, 229~230, 235쪽; 경복문화재단, 「고속국도 제29호선

시궁산과 쌍령산이 만든 능선은 동쪽으로 이천과 이어지고 남쪽으로 안성에 면한다. 산의 서북쪽으로 연결되는 길은 용인현의 중앙부를 지나 광주목으로 이어진다. 용인현과 양지현의 자기소는 주변 접근성이 좋은 山稜線을 공유했던 것이다(그림 4).



<그림 4> 시궁산과 쌍령산의 위치와 용인현과 양지현 자기소 추정 위치

용인현의 자기소로 파악하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분청자 가마터는 시궁산의 서쪽 요산동에 자리한다. 현재 화산리 분청자 가마터가 있는 요산동은 지리지의 용인현 자기소와 땅이름이 같다. 화산리 분청자 가마터에서는 국화문, 귀갑문, 화문 등을 인화상감기법으로 시문한 분청자편이 수습됐다.²¹⁾

세종~포천(안성~용인)간 건설공사(제4, 6공구)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9. 21) 경기도자박물관,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 2016, 56~57쪽.

시공산의 동쪽이자 쌍령산 東斜面인 학일리에도 분청자 가마터가 있다.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는 현재 용인시 원삼면에 속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양지현에 속했다. 『地理志』에 따르면 양지현은 1399년(定宗 元年)에 陽良村 部曲을 고쳐 만들었으며, 1413년(太宗 13)에 治所를 秋溪鄉으로 옮겼다.²²⁾ 양지현의 자기소는 현의 남쪽 樞項에 자리했으며 下品이었다(표 1). 최근 발굴조사한 용인시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가 자리한 곳이 바로 함항일 가능성이 높다.²³⁾

양지현의 자기소가 있었다는 함항은 울타리 ‘樞’자와 목덜미 ‘項’자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보통 ‘項’자가 붙은 지명은 주로 산 사이 峽谷의 길목에 붙는다. 전국에 산재한 獐項이라는 옛 지명이 ‘노루목’으로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함항 역시 우리말로 ‘울타리목’, ‘우리목’ 정도에 해당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 사이에 자리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양지현의 남쪽은 현재 용인시 원삼면과 백암면 지역이며 실제로 상당 부분이 산지와 계곡이다.

현재 용인시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가 자리한 지역은 1911년 日帝가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지명을 조사할 때까지도 양지현 木岳面 학일리였다. 학일리에는 ‘加木坪’이란 지명이 있다.²⁴⁾ 加木 혹은 架木은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22) 『世宗實錄』 148卷,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陽智縣. “本水州屬陽良村部曲 本朝恭靖王 元年己卯 改爲陽智縣 始置監務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移縣治于廣州任內秋溪鄉 以地窄 割廣州任內高安·大谷·木岳·蹄村四部曲以屬之.”

23)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에서는 인화상감기법으로 화문, 인화문 등을 시문한 분청자편 등이 발굴됐다. 경북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이번에 발굴한 가마터를 『地理志』의 양지현 자기소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학일리가 15세기 전반에 자기를 생산한 곳임은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경기도 자기소의 입지 특징을 통해 등재 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조선시대 용인현과 양지현 자기소의 위치 비정과 생산품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다.

24) 경기문화재단, 『朝鮮地誌資料』 京畿篇, 2008, 243쪽. 이 책은 1911년의 행정구역과 지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산이 울타리처럼 둘러진 지형을 본떠 붙인 땅이름인 ‘울타리목[檻項]’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강조한 ‘가목’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고, 가목의 앞뿔을 ‘가목평’으로 부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는 별도로 학일리에 ‘砂器幕’이란 지명도 있었으며,²⁵⁾ 최근 이 지역에서 발굴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운영된 백자 가마터를 통해 땅이름의 유래를 확인했다.²⁶⁾ 용인현과 양지현의 자기소는 시궁산과 쌍령산이라는 입지 배경이 등재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경기도 자기소 등재 기준에 산과 그로 인한 땀감 확보의 용이성이 감안되었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자기 생산시설을 거느린 광주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²⁷⁾ 물론 광주목은 땅이름처럼 넓은 고을이었고, 지역의 동쪽은 대부분 산지여서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땀감을 구하기 편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나 되는 자기소와 도기소가 자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목에 많은 도자기 생산시설이 마련된 것은 산과 구릉 위주의 지형특징과 함께 광주목과 왕실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광주목은 도성과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다.²⁸⁾ 광주목은 왕실에서 사용하는柴炭의 주요공급처인 만큼 숲이 우거져 사냥에도 적합했다.²⁹⁾ 15세기 광주목은 왕실 講武場의

25)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2008, 242쪽.

2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분청자 가마터 인근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백자 가마터도 발굴됐다. 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27) 광주목에는 上品 자기소 1곳, 下品 자기소 2곳, 品을 부여하지 않은 자기소 1곳 등 총 4곳의 자기소가 등재되었고, 3곳의 도기소가 자리했다. 『世宗實錄』 148卷, 地理志 京畿 廣州牧. “磁器所四 一在州東代乙川 上品 一在州東所山 一在州南石掘里 皆下品 一在州東羔峴 陶器所三 一在州南草峴 中品 一在州東草伐里 一在州西梨串 皆下品.”

28) 『世宗實錄』 106卷, 26年(1444) 10月 6日 辛亥條. “...廣州地廣事劇 且當路傍 使客絡繹 潔不勝其任...”

29) 『經國大典』 卷6 公典 柴場. 도성 관청들의 시장 위치는 광주라는 지명 없이 단순히 물가[水邊]로만 등장한다. 이를 통해 당시 君臣 모두 광주를 당연히 왕실과 정부의 땅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대명사일 만큼 국왕이 빈번하게 거둥했던 곳이다.³⁰⁾ 광주목에는 太祖(재위 1392~1398)와 太宗(재위 1400~1418)의 壽陵址도 자리했으며,³¹⁾ 왕실 목장도 있었다.³²⁾ 또한 本宮 소용의 꼴을 베는 지역도 있었다.³³⁾ 한양을 새로운 도성으로 정한 뒤 조선 왕실은 도성과 가까운 광주목을 선점하여 여러 용도로 활용했다.

광주목은 영남로가 지나는 길목인 만큼 지역을 오가는 大小人員의 숙식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접대에 필요한 그릇의 수요가 컸을 것이다. 또한 광주목은 관요 성립 이전부터 明에 진헌할 정도의 백자를 제작했다.³⁴⁾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관내에 상품 1곳을 포함하여 총 4곳의 자기소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
- 30) 『太宗實錄』 21卷, 11年(1411) 2月 25日 丙辰. “…上不悅曰 爾等請止講武 予當從之 改講武曰廣州陪奉 令三省不得扈駕…”
- 31) 『太祖實錄』 9卷, 5年(1396) 4月 6日 癸巳. “上過廣州 相壽陵之地.”; 『太宗實錄』 30卷, 15年(1415) 11月 15日 戊申. “命左議政河崙 相壽陵於廣州 知申事柳思訥從之 復命曰 廣州西大母山南 相得善地.”
- 32) 『太宗實錄』 26卷, 13年(1413) 7月 25日 壬寅. “內廐馬三十六匹 分養于京畿 廣州等官.”
- 33) 『太宗實錄』 26卷, 13年(1413) 8月 24日 庚午. “傳旨廣州曰 草伐石積等處 嘗爲本宮刈草之地 今後勿禁民刈取.”
- 34) 『世宗實錄』 27卷, 7年(1425) 2月 15日 乙卯.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罐本十事 精細礪(燻) 造以進.”



<그림 5> 경기도 광주목과 검단산 및 벌을천 강무장 추정 유숙지

광주목에서도 黔丹山 주변은 국왕들의 강무가 빈번했던 곳으로 현재 광주 시 南漢山城面에 해당한다.³⁵⁾ 남한산성면에는 광주목 자기소 중 하나인 樊川里 가마터가 있다.³⁶⁾ 『地理志』에 伐乙川, 혹은 伐川으로 등장하는 이 곳은 15세기 전반 국왕이 강무 중에 유숙지로도 활용했다(그림 5).³⁷⁾

35) 『太宗實錄』 33卷, 17年(1417) 1月 29日 丙辰. “廣州判官吳寧老進啓本 前此 領議政柳廷顯啓曰 廣州 黔丹山下以講武場 民不得刈草伐木 民怨至天.”

36) 광주목의 上品 자기소를 번천리 2호 가마터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姜敬淑,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 문제」, 『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下)』, 1994, 1472~1497쪽.

37) 『世宗實錄』 15卷, 4年(1422) 2月 30日 丁巳. “兩上自樂天亭渡廣津 觀獵于廣州 彌羅山次于伐川.”; 『世宗實錄』 38卷, 9年(1427) 10月 2日 丙辰. “驅彌羅寺 巾之山 李甫峴畫停于廣知院下洞 讓寧大君 禔來見 中宮遣內官韓古文來問安 夕次于伐川.” 본문의 <그림 5>는 박정민, 앞의 논문, 2014, 38쪽 지도 4를 제사용했다.

강무는 국왕을 비롯하여 다수의 人馬가 참여하는 군사목적 행사이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유숙할 수 있는 넓은 뜰과 고위층들이 머물만한 기본적인 숙소 시설을 갖춘 장소를 확보해야만 했다. 태종과 世宗(재위 1418~1450)父子는 강원도에 강무할 때는 橫川(橫城) 자기소를 유숙지로 활용했다.³⁸⁾ 원료와 연료를 쌓아둘 장소가 있고 가마와 작업장 및 장인들의 숙소를 갖춘 자기소는 강무 중 유숙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했던 모양이다.

강무는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 행사였다. 특히 태종과 세종 시절에는 軍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금이 종묘에 올린 제물을 사냥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강무를 실시했다.³⁹⁾ 강무는 단순한 사냥과 다른 국가행사였으며, 나라의 번거로움을 겪는 국왕의 피로를 풀기 위한 일종의 스포츠 기능도 수행했다.

조선 정부는 강무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의 산과 숲을 선정했다. 간혹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대체로 강무장으로 정한 곳은 일반인의 사냥과 벌목을 금지했다.⁴⁰⁾ 임산자원 채취와 경작행위도 금지되거나 까다로워지므로 조선 왕실이 강무장으로 정한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숲이 울창했을 것이다. 광주목의 숲은 다수의 자기소를 해당 고을에 등재시킬 수 있는 기본요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목 인근 양근군과 지평현에도 각각 1곳의 자기소가 등재되었으며, 이 지역 또한 대부분 산지에 해당한다. 양근군은 광주와 바로 붙은 곳으로 태종과 세종 부자가 즐겨 찾던 강무장이었다.⁴¹⁾ 지평현 또한 양근군과 함께

38) 『太宗實錄』 28卷, 14年(1414) 閏9月 7日 丁未. “次橫川砂器所…”; 『世宗實錄』 6卷, 1年(1419) 11月 5日 乙巳. “…駕次橫城 沙器所…”; 『世宗實錄』 31卷, 8年(1426) 2月 15日 己卯. “江原道觀察使鄭龜晉 都事裒素 橫城縣監吳敬之 驅軍差使員杆城兵馬使丁克勤 提川縣監元郁等迎謁 夕次于沙器所.”

39) 『太宗實錄』 124卷, 31年(1449) 4月 17日 丙寅. “議政府據兵曹呈啓 講武 所以訓練士卒 教閱行陳 上以供籩豆之需 下以除禽獸之害 其四時之畋 不可或廢.”

40) 『世宗實錄』 122卷, 30年(1448) 12月 10日 壬戌. “…上項諸山內 除舊爲講武場外 其餘諸山 亦拉禁伐木 則京城近地 樵採無所 弊亦不貲 令所在官 依東西郊例 只行禁獵 從之.”

강무장으로 활용한 곳이다.⁴²⁾ 특히 양근군과 지평현은 왕실이 광주목에서 강무할 때 물이꾼을 제공하거나 강무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지원처 역할을 수행했다.⁴³⁾ 왕실이 강원도 서남부로 강무할 때도 양근군과 지평현이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광주목·양근군·지평현은 당일이나 이틀 정도 일정으로 강무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지만 주변에 농토가 많아서 지역민의 반발이 따랐다. 왕실은 광주목과 그 인근지역에서 계속 소규모의 사냥을 했지만 대규모 강무를 위해서는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까지 행차했다. 그러나 왕실은 변란을 대비해 가급적 도성과 가까운 경기도에 강무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 강무장이 바로 양주도호부⁴⁴⁾와 철원도호부의 접경 지대인 포천현⁴⁵⁾, 가평현⁴⁶⁾, 영평현⁴⁷⁾ 등지였다(그림 6). 해당 군현들은

41) 『太宗實錄』 26卷, 13年(1413) 10月 10日 丙辰. “命禁楊根 砥平 橫川等處私獵.”; 『太宗實錄』 27卷, 14年(1414) 3月 17日 庚寅. “駕至楊根 觀獵于北山 親射鹿四.”; 『世宗實錄』 3卷, 1年(1419) 2月 20日 乙未. “宣旨 主上體重 明日欲與主上 陪老上王 幸東郊廣津 又將田于楊根 廣州 卽令兵曹約會京畿各官才人 禾尺于草伐里.”; 『世宗實錄』 11卷, 3年(1421) 2月 26日 己未. “夕次楊根南郊.”

42) 『太宗實錄』 26卷, 13年(1413) 10月 21日 丁卯. “命大護軍李君實 行視楊根砥平洪川橫川 以覘禽獸之多少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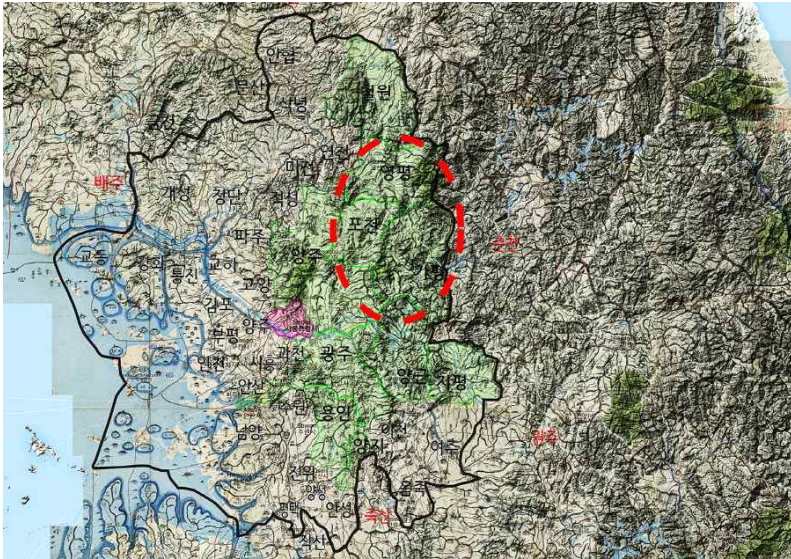
43) 『世宗實錄』 3卷, 1年(1419) 2月 22日 丁酉. “兵曹啓 楊根城山驅軍二千名 發楊根砥平等八邑 廣州 劔斷山驅軍二千名 發廣州龍仁等九邑 上王從之.”

44) 양주도호부는 도성에서 가깝고 태조가 머물던 檜巖寺가 자리한 곳이며, 조선 초기 광주와 함께 대표적인 강무장이었다. 태조는 물론 세자 시절의 문종까지 여러 국왕들이 양주에서 강무했다. 『太祖實錄』 12卷, 6年(1397) 12月 15日 癸巳; 『太宗實錄』 9卷, 5年(1405) 2月 15日 辛巳; 『太宗實錄』 21卷, 11年(1411) 2月 20日 辛亥; 『世宗實錄』 1卷, 卽位年(1418) 10月 4日 庚辰; 『世宗實錄』 10卷, 2年(1420) 10月 17日 壬子; 『世宗實錄』 51卷, 13年(1431) 2月 9日 甲辰; 『世宗實錄』 98卷, 24年(1442) 10月 7日 甲午.

45) 왕실의 강무는 대부분 양주도호부와 포천현을 아우르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太宗實錄』 27卷, 14年(1414) 2月 17日 辛酉; 『太宗實錄』 31卷, 16年(1416) 3月 2日 甲午; 『世宗實錄』 16卷, 4年(1422) 4月 13日 己亥.

46) 가평현은 인근의 양주도호부, 포천현, 양근군 등지와 산으로 이어지며, 태종과 세종

산으로 연결된 곳이며, 특히 현재 포천시에 해당하는 양주도호부 포천현과 철원도호부 영평현은 도성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대규모 군사훈련에 적합한 산과 들이 연이어진 곳이다. 태종과 세종 부자는 광주목이나 그 인근 지역과 함께 이 곳을 주된 강무장으로 삼았다.



<그림 6> 포천현·가평현·영평현 지역의 강무장 범위 추정

부자가 강무를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던 곳이다. 『太宗實錄』 30卷, 15年(1415) 10月 22日 丙戌; 『太宗實錄』 32卷, 16年(1416) 7月 5日 甲午; 『世宗實錄』 122卷, 30年(1448) 12月 10日 壬戌.

- 47) 영평현은 철원도호부에 속했던 군현으로 현재 포천시 북부에 해당한다. 영평현은 철원도호부에 속한 다른 군현들이 주로 임진강 수계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양주도호부의 포천현 및 가평현과 산지로 이어진다.

<사료-1>

상왕이 임금과 함께 포천·영평 등지에 거둥하였는데, 효령대군 이보·경녕군 이비·영의정 유정현·좌의정 박은·우의정 이원 등 26인이 행차에 수행하고, 甲士 5백 명과 대장·부대장과 別軍·보병 2천 명이 짐승을 몰이하게 하였다. 상왕이 王方山 아래에서 노루를 쏘고, 또 深谷 남쪽 산 아래에서 사슴을 쏘았다. 저녁에 영평현 江時의 들에 머물렀다.⁴⁸⁾

포천과 영평지역에서는 <사료-1>처럼 2천5백 명 이상의 군사가 참여한 대규모 군사훈련 형태의 강무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장기간의 강무를 위해 세종은 포천에 離宮인 豐壤宮까지 마련했다.⁴⁹⁾

국왕의 강무는 많은 수의 인원을 동원했다. 강무에 참여한 병사는 물론이고 필요한 물품을 운반할 인력도 필요했다. 많은 사람과 짐이 동원되는 행사였으므로 이동의 효율을 위해 깨지기 쉽거나 부피가 큰 식기와 식자재는 주로 현지에서 조달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대규모 강무를 장기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무장이 속한 군현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도 필요했다. <사료-2>처럼 강무에 참여하는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그릇을 지역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일은 직접적인 반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료-2>

…壓基가 아뢰기를, “신이 예전에 솜人所로 있을 때에 각처의 宿所에 창고를 두고 강무하는 데 소용되는 물품을 간직해 두기를 청하였더니,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강무하는 것을 싫어함은 오로지 강무를**

48) 『世宗實錄』 11卷, 3年(1421) 3月 29日 辛卯. “上王與上幸抱川 永平等處 孝寧大君補 敬寧君 領議政柳廷顯 左議政朴崙 右議政李原等二十六人扈駕 以甲士五百人 隊副 隊長 別軍步兵二千人驅禽 上王射獐于王方山下 又射鹿于深谷南山下 夕次于永平縣 江時原.”

49) 『世宗實錄』 6卷, 1年(1419) 12月 23日 癸巳. “上命并抱川屬縣豐壤于楊州都護府 令本縣及京中各司年例輸納米穀 竝於縣內演福寺收積 將營離宮也.”; 『世宗實錄』 14卷, 3年(1421) 11月 22日 辛巳. “晝停抱川之知乙洞 孝寧大君補等侍 遂還豐壤宮.”

행할 때마다 민간에서 器皿 등의 물건을 거두어 모으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명 등의 물건을 미리 창고에 간직하였다가 그 쓰임에 이바지하면, 백성들이 어찌 싫어하오리까.”하고…:50)

그릇을 빼앗긴 백성들의 불만은 매번 그 지역으로 강무를 떠나야하는 왕실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강무장이 자리하는 군현의 지방관은 자주 있는 강무에 대비해 필요한 수량의 그릇을 비축해두고 강무가 끝나면 다음 강무를 위해 소실된 만큼 새로운 그릇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 정부는 양주도호부, 포천현, 가평현, 철원도호부, 영평현 등 강무장으로 사용한 경기도 동부 군현에 자기소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지역 자기소들을 통해 대규모 강무에 필요한 그릇을 조달하고 때로는 유숙지로도 확보했을 것이다. 『地理志』에 기록된 포천현의 인구는 1,222명이다.⁵¹⁾ 인구의 두 배 이상 되는 군대가 자주 주둔하는 지역의 특성상 강무에 참여하는 인원이 사용할 식기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강무장이 자리하는 군현의 자기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 지역 자기소 중에는 國用木材를 위한 산에 자리한 곳도 있었다. 국용목재를 위해 일반의 벌목을 금지한 산은 다른 곳에 비하여 숲이 우거졌을 것이지만 숲이 마냥 우거진다고 좋은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재로 쓸 만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간벌 등 관리가 필요하다. 국용목재를 제공하던 산에 자기소를 마련해 두면 그 산의 나무를 뿔감으로 사용해 어느 정도의 간벌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동시에 해당 군현과 왕실의 강무에 필요한 그릇을 수월하게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50) 『世宗實錄』 123卷, 31年(1449) 9月 6日 丙戌. “…堅基曰 臣昔爲舍人時 請置庫于各處宿所 以藏講武供費之物 今皆頽壞 百姓之厭講武者 專以每行收聚民間器皿等物故也 如其器皿等物 預藏于庫 以供其用 則民何厭乎…”

51) 『世宗實錄』 148卷, 地理志 京畿 楊州都護府 抱川縣. “戶三百七十一 口一千二百二十二.”

<사료-3>

병조에 전지하기를, “경기도의 抱川 峯所里와 永平 白雲山의 閑木洞·淸溪洞과 加平의 蘆岾·高飛洞 등지는 國用의 材木이 소재한 곳이니, 산지를 정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소재지의 수령들이 無時로 짐고하고 살피게 하라.”하였다.⁵²⁾

<사료-3>이 언급한 양주도호부 포천현의 ‘峯所里’는 포천현의 자기소가 있었다는 현의 동쪽 ‘蜂窠里’와 동일한 지역으로 사료된다.⁵³⁾

포천현의 자기소는 안정적인 땀감 확보와 왕실 강무 행사에 필요한 그릇 제공을 위해 국용목재를 조달하는 산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현재 포천시의 동쪽 雲岳山(936m) 서쪽 사면에 花峴里 분청자 가마터(포천시 향토 유적 제52호)가 자리한다.⁵⁴⁾ 물론 화현리 분청자 가마터를 봉소리 자기소로 특정할 만한 명문자료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천시의 동쪽에 해당하는 운악산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15세기 전반의 분청자 가마터는 화현리 가마터가 유일하다. 또한 화현리에는 ‘鳳巢溪’라는 하천과 ‘鳳巢嶺’이라는 고개가 지금도 있으며 해당 땅이름은 일제강점기 기록에도 등장한다.⁵⁵⁾ 포천시의 지명유래를 감안해 볼 때, 조선 초기 ‘蜂窠里’ 자기소는 국용목재를 위한 일반의 벌목을 금지한 ‘峯所里’와 같은 곳으로 현재 운악산 서쪽인

52) 『世宗實錄』 25卷, 6年(1424) 9月 10日 壬午. “京畿 抱川 峰所里 永平 白雲山 閑木洞 淸溪洞 加平 蘆岾 高飛洞等處國用材木所在之地 山直差定 禁人斫伐 所在守令 無時考察.”

53) 『世宗實錄』 148卷, 地理志 京畿 楊州都護府 抱川縣. “...磁器所一 在縣東蜂窠里...”

5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산림청,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窯址 발굴조사 보고서』, 2006. 분청자와 백자를 함께 제작한 화현리 가마터에서 운영시기를 특정할만한 명문자료는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발굴자는 출토유물을 통해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1420~1430년대로 파악했다. 화현리 가마터에서는 온녕군(溫寧君) 이정(李程, 1407~1454)의 묘에서 출토된 와선문 분청자와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인화상감기법의 집단원권문을 동체에 가득 시문한 유물도 출토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가마터는 1430년대 이후로도 요업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55)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8, 264, 277쪽.

포천시 화원면 화현리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악산은 현재 포천시 화원면과 가평군 조종면의 경계에 자리하며, 가평군 방향인 동북쪽으로 상판리와 하판리 지역에는 조선 후기 백자와 흑자를 제작한 가마터들이 발굴되었다.⁵⁶⁾ 운악산은 앞서 살펴본 용인시 이동면 시궁산과 쌍령산 인근처럼 東西로 연결한 군현의 자기 가마들이 입지한다(그림 7). 또한 운악산에는 ‘점토골’ 등의 땅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료 확보도 편리했을 가능성이 크다.⁵⁷⁾



<그림 7> 운악산 주변 포천과 가평의 자기 가마터 위치

운악산 동쪽의 가평현 역시 강무장으로 활용이 잦은 곳이었으며 관내

56) 경기도자박물관, 『가평 하판리 백자가마터』, 2009; 한국문화유산연구원, 『加平 下板里 窯場 發掘調査報告書』, 2010.

57) 抱川文化院, 『抱川의 地名由來集』, 2006, 588쪽.

자기소가 등재되었다. 가평현은 지역에 많은 산이 있어서 목재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군현이었고, 또한 목재를 도성으로 조달할 물길도 잘 갖추어진 곳이였다. 가평현에 <사료-3>처럼 국용목재 생산지가 배정된 것도 이러한 여건 들 때문이다. 1429년(世宗 11)에 도성의 太平館을 짓기 위해 필요한 나무 또한 가평에서 배었다.⁵⁸⁾

양주도호부 포천현과 가평현의 강무 행차는 대부분 철원도호부의 관할지로 이어졌다.⁵⁹⁾ 철원도호부의 북쪽 일부 지역은 현재 강원도에 속해있다. 조선 정부는 대표적인 왕실 강무장인 양주도호부 포천현, 가평현 지역과 영평현 등 철원도호부의 남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기 원했다. 이를 위해 철원도호부 남쪽 군현을 양주도호부에 예속시키고 나머지는 경기지역의 번잡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와 인근 다른 지역에 편입시키기도 했다.⁶⁰⁾

현재 철원의 북쪽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도자기 가마터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가 쉽지 않다. 대신 조선시대 철원도호부에 속했던 영평현은 자기 생산특징과 배경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⁶¹⁾ 현재 포천시의

58) 『世宗實錄』 45卷, 11年(1429) 8月 8日 壬午. “…太平館乃迎接使臣之所 而廳事隘陋 儀觀不嚴 予初欲改營 試問左右 有一二大臣沮之者 提調等曰 若聚僧徒役之 則可不煩民 不數月而功易成矣…命護軍金倣 取材于加平…”

59) 『世宗實錄』 148卷, 地理志 京畿 鐵原都護府. “…講武場在府北 地廣人稀 禽獸所同 爲講武常所 置守者及網牌九十名.”

60) 『世宗實錄』 66卷, 16年(1434) 10月 25日 戊辰. “都承旨安崇善啓 禮曹判書申商與臣言曰 京畿 鐵原府講武最宜之處 繇役倍多 移屬江原道 以忠淸道 竹山縣移屬京畿 何如 上曰 令兵曹立法.”; 『世宗實錄』 70卷, 17年(1435) 12月 17日 甲寅. “吏曹啓 京畿 鐵原移屬江原道 其領內永平漣川朔寧移屬楊州 臨江麻田長湍及楊州領內交河臨津高陽等官 移屬原平府 忠淸道 竹山縣 移屬京畿 水原府 從之.”

61) ‘永平’이라는 地名이 인각기법으로 표시된 조선 15세기 백자가 서울 세종로 2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永平’명발>과 <백자‘永平’명접시>를 통해 영평현의 조선 초기 백자 제작은 확인했으나, 『地理志』에 언급된 자기소의 현재 위치나 요업 특징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민, 『조선 15세기 전반

북부는 조선 전기 영평현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다. 영평현은 15세기 전반 조선 왕실이 특히 애용하던 강무장으로 태종과 세종 부자가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그에 따라 국왕의 유숙을 위해 영평현의 관리와 백성들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⁶²⁾

영평현에는 2곳의 자기소가 등재되었으며, 이는 국왕의 잦은 방문과 주변에 자리한 국용목재 產地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땀감을 기반으로 백자도 생산할 수 있었던 지역의 요업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철원도호부의 연천현·임강현·마전현 등 임진강 수계의 군현들 또한 가끔 국왕의 사냥과 강무 행차가 방문했던 지역이다. 특히 연천현은 철원도호부와 영평현 등 주변의 강무에 인력과 물자를 제공했지만,⁶³⁾ 자기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낮에 일부 행사가 연천현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왕일행이 주로 유숙하는 장소는 역시 철원도호부와 영평현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조선 정부는 <사료-3>처럼 주로 포천현·가평현·영평현 등 서로 산지로 이어지는 지역의 숲을 보호하여 강무장은 물론 국용재목을 확보했고 또 부수적으로 이들 군현에 자기소를 등재해 필요한 그릇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군현 중 자기소가 등재된 10곳은 대부분 조선 왕실의 강무와 연관이 깊은 산지에 자리한다. 국왕이 강무를 하면 많은 인원이 호종했고 지방관은 어가를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했다. 조선 정부는 강무 때 마실 술을 강무장이 있는 군현과 그 주변의 國庫米를 통해 미리 마련해두는 조치도 취했다.⁶⁴⁾ 강무의 연회에는 당연히 수많은 그릇도 필요했다.⁶⁵⁾

경기도 永平縣의 백자제작 배경과 특징, 『강좌미술사』 44, 2015, 267~291쪽.

62) 박정민, 위의 논문, 272~278쪽.

63) 『太宗實錄』 27卷, 7年 3月 10日 庚辰. “驅漣川 加昇平及夫老只山 上射獲鹿一獐一 晝停于夫老只山西平設酌 在內諸君入侍.”; 『世宗實錄』 62卷, 15年(1433) 10月 3日 壬子. “前此 兵曹啓曰 寶藏山驅軍 令抄漣川鐵原抱川永平侍衛牌 人吏 日守及各品品從.”

조선 정부는 경기도의 경우 주로 강무장으로 사용한 군현에 자기소를 등재해서 필요한 그릇을 확보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15세기 전반 자기소가 등재된 경기도 동쪽 산지 군현의 道內 重要 역할 중 하나는 강무장이거나 강무행사의 지원이었다.⁶⁶⁾ 그러므로 숲이 우거진 산이 적어 강무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기도 서해안 지역과 남부의 군현에는 자기소가 등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서해안 군현은 나무를 주로 해안방어를 위한 목책이나 소금 생산을 위한 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군현에 자기소가 등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5세기 조선 정부의 空島정책도 서해안 군현에 자기소를 등재하지 않은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조선 개국 후 경기도 서해안의 여러 섬 중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無人島가 많았다.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요충지인 강화도호부 등 일부 섬에만 정부의 관심과 행정력이 미쳤을 뿐이다. 이외 경기 서해안에 대한 지리정보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⁶⁷⁾

64) 『世宗實錄』 42卷, 10年(1428) 12月 22日 己亥. “戶曹啓 講武時所用酒米 請令京畿楊州 抱川漣川鐵原永平等官并三十石 江原道平康伊川金化等官并十石 以其官國庫米 每年春秋釀酒 以爲恒式 命各加十石.”

65) 『世宗實錄』 6卷, 1年(1419) 11月 3日 癸卯. “…是日 觀鷹于平丘驛等處 晝停于楊州 曹時背嶺之南 京畿監司曹致 經歷柳士根等來見 仍進酒果 命饋僉摠制以上于帳殿前 賜酒于侍衛大小人 遂獵于龍津之陽 涉龍津灘 次于南岸 曹致又獻酒果 命分賜侍衛大小人 每晝停 宿所必以所獻酒 分賜侍衛諸人.”

66) 현재까지 경기도의 분청자 가마터에서는 관사명이 표시된 유물이 보고된 바 없다. 선행연구는 그 원인을 경기도 자기소는 공납보다 해당 군현의 필요를 위해 그릇을 제작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 견해는 설득력이 있으며 자기소가 등재된 경기도 군현의 자기 수요량 중 상당수는 강무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경자, 앞의 논문, 2009, 83쪽.

67) 『地理志』에 기록된 경기도 섬은 인천, 강화, 교동, 남양 등 4개 군현에 22개이다. 반면 15세기 후반의 『東國輿地勝覽』에는 경기도 해안가 군현 8개 모두에 속한 섬을 기록해 두었으며, 그 숫자는 『地理志』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59개이다. 임학성, 「조선시대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 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鎮 설치(조선 후기)로」, 『도서문화』 43, 2014, 42쪽.

더욱이 15세기 전반까지도 경기도 서해안 군현들은 왜구의 침입을 방비해야 하는 戰略地였으므로 목책 등 방어시설이나 선박을 건조할 나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한 지역에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나무 소모가 필요한 자기소를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⁶⁸⁾ 또한 경기도 서해안은 소금 공급을 위한 시설 마련이 더욱 중요시되던 곳이다.⁶⁹⁾ 煮鹽 위주의 소금 생산 환경에서 경기 서해안 군현에 도자기 가마터가 자리했다라도 땀감의 수월한 확보는 담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 특징 때문에 부평도호부와 수원도호부에 속한 경기도 서쪽 해안가 군현에는 자기소가 등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I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감안할 때, 『地理志』의 경기도 자기소 등재 기준에는 자기소가 속한 군현의 역할, 즉 왕실의 강무장 혹은 강무행사 지원 같은 임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의 강무장으로 활용한 군현은 대부분 경기도 동쪽의 산지에 자리하며 숲을 갖춘 곳이었다. 경기도는 강무처럼 왕실의 중요 행사를 수행하는 近畿라는 지역의 역할을 자기소 등재 기준에 적용했던 모양이다.

이번 접근은 사료와 지명유래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기소의 등재 기준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경기도만 다루었기 때문에 편중된 시각으로 논지를

68) 『太宗實錄』 15卷, 8年(1408) 5月 18日 丙寅. “分遣熙川君 金宇等于京畿左右道 禦倭也.”; 『世宗實錄』 5卷, 1年(1419) 8月 11日 癸未. “…造船之材 必須松木 其可不預養而致用乎 國家雖立禁伐之令 未有培養之方 請申嚴禁伐禁火之令 又於沿海閑曠之地 使之栽植 監司每當殿最 憑考黜陟 以備他日之用 上王從之.”

69) 강화도호부에만 11곳의 염소가 있었다. 『世宗實錄』 148卷, 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江華都護府. “…鹽所十一…”

전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게 어렵다. 물론 「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의 등재 기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139개 자기소에 대한 고찰을 한 번에 종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국 자기소 등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유추하기 위해 경기도의 상황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자기소 등재 기준을 추론하는 것은 한국도자사 연구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접근이다. 각 도별 자기소 등재의 기준을 파악한 뒤, 전국에 걸친 공통점을 골라낸다면 각 도의 자기소 등재 기준을 관통하는 중요한 보편성과 지역에 따른 특수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문헌

-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단행본

윤용이,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학위 및 학술논문

- 姜敬淑,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 문제」, 『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下)』, 일조각, 1994.
- 구유리, 「조선전기 인화상감자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영원, 「朝鮮朝 印花文 粉靑沙器의 樣式分類」, 『考古美術』 148, 1980.
-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 27, 2013.
- _____, 「상주 상판리 자기 가마와 『世宗實錄』 「地理志」 上品 磁器所」, 『상주 상판리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2017.
-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조선 15세기 전반 경기도 永平縣의 백자제작 배경과 특징」, 『강좌미술사』 44, 2015.
- 심지연,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창간호, 2018.
- 안세진,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磁器所 品等の 의미와 品定の 목적」,

『도예연구』 27, 2018.

임학성,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 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鎭 설치(조선 후기)로」, 『도서문화』 43, 2014.

보고서

경기도자박물관, 『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_____, 『경기도의 도요지』 I, 2015.

_____,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 2016.

_____, 『가평 하판리 백자가마터』, 2009.

경기문화재단, 『朝鮮地誌資料』京畿篇, 2008.

경북문화재단,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간 건설공사(제4, 6공구)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9.

용인시 외, 『용인의 도요지』, 1999.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산림청,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窯址 발굴조사 보고서』, 2006.

抱川文化院, 『抱川の 地名由來集』, 200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加平 下板里 窯場 發掘調査報告書』, 2010.

(재)화서문화재단연구원, 「인천 강화 사기리(산 5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9.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REGISTRATION
CRITERIA OF JAGISO(磁器所) IN GYEONGGI PROVINCE
EXAMINED THROUGH 『THE ANNALS OF KING
SEJONG(世宗實錄)』 AND 『BOOK OF GEOGRAPHY(地理志)』

PARK JUNGMIN (PARK, JUNG MIN)

This study deduces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in local counties and prefectures(郡縣) of Gyeonggi province, which are recorded ceramics workshop known as Jagiso(磁器所) in 『The Annals of King Sejong(世宗實錄)』 and 『book of geography(地理志)』 thereby inferring the criteria of registration for Jagiso in Gyeonggi province.

139 kilns across the country in the early Joseon period. At this time, some kilns were registered as Jagiso. Some kilns were not so.

As for the registration criteria of Jagiso in the whole country, there is a need to first grasp a situation in the unit of province(道). That is because even the registration criteria of having reflected regional particularity will definitely exist even though the specific registration of criteria may be applied across the country.

In Gyeonggi province, totally 14 sites of Jagiso were registered in 10 local counties and prefectures such as Gwangjumok(廣州牧).

Jagiso in Gyeonggi province is mostly situated in mountain area of corresponding to the eastern half of Gyeonggi province. This districts were

used as great hunting ceremony field(講武場) by the royal family of Joseon. The Joseon government prepared beforehand for the necessary supplies during great hunting ceremony in the district in order to reduce damage and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living near the great hunting ceremony field. The Joseon government seems to have secured necessary bowls through recording Jagiso in local counties and prefectures of having been used as great hunting ceremony.

This phenomenon is the result that was reflected distinct characteristics between Gyeonggi province and the royal family. In addition the registration criteria of Jagiso in Gyeonggi province can be understood in which even the correlation with the royal great hunting ceremony was reflected.

Key Words : Jagiso(磁器所, ceramics workshop), Gyeonggi province, Criterion of registration, Great Hunting Ceremony field(講武場), Taxation Supply